

# 교회상림 113주년을 맞이하여

## 교회 역사발굴 현장에서...

1904년 1월 5일 평동 판동에 백운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07년 학교를 세우게 된다. 그러던 중 이영필씨와 그 부인 루디아씨가 회개하고 교회일에 힘쓰게 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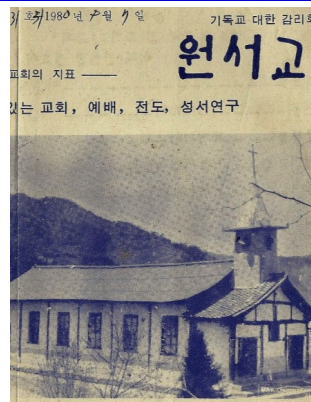
교회는 큰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교인수가 100여명에 이르게 되었고, 1912년에는 학교도 크게 발전하여 32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 결국 1912년 8월에 별도의 건물을 건축하여 여 아이들을 따로 가르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병든자들을 많이 돕는다. 당시 충주시 엄정면 유봉리의 축현에 사는 서씨 마리아가 큰 병으로 고생했으나 여비가 없어서 병원으로 가지 못했다. 이때 이영필씨가 노자를 담당하여 경성제중원으로 보내어 병을 고치게 되었고, 시계를 봉헌하여 사람들이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였다. 또한 그 부인 루디아씨는 성미를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할뿐만 아니라 한번도 빼먹지 않았고, 성경말씀대로 살았으며,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스도회보 1912년 8월 15일 3면>

박영간씨는 본래 평북 철산교회의 성도였으나 1920년 다릿재 고개 밑동네로 이사해서 열심히 전도해 한사람의 성도도 없는 곳에서 40여명을 전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넉넉지 못한 생활속에서 자녀 8명중에 아기를 제외한 7명을 경성에 있는

보통 학교에 보내 교육시켰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이 자자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주일이면 10리나 떨어진 교회로 성도들을 인솔하여 예배하였고, 사람은 공수래 공수거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에게 전부 쓰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독신보 1927년 11월 16일자 2면>

백운교회는 설립초기부터 교육과 구제에 많은 힘을 쓴 것 같다. 그리고 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더욱 더 부흥해 간다. 지금까지 백운교회는 계속 부흥해 왔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때문이었다. <신상균 담임목사>



### CHARCH NEWS 교/회/소/식

**▶2016년 당회**  
지난 12월18일(주일) 오후 2시 2016년도 당회를 가졌다. 회원점명을 시작으로 교회

역사와 입교인 명부정리, 직분보고를 비롯해 올 예산결산과 감사, 내년 예산, 담임목회 계획 등을 의결하고 마쳤다.

**▶박달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준공식**  
지난 12월 26일 오전10시 백운면 전통시



장 고객지원센터 현장에서 내 외빈을 모시고 준공식을 가졌다.

**▶제천시 성탄추리 점등식**  
지난 12월10일(토).오후5시 제천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성탄추리 점등식"이 제



천시 차 없는거리 중앙통에서 각계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감사예배"를 드렸다. 제일감리교회 안정균목사님과 제천시장 이근규시장님의 격려사로 시작된 점등예배는 뜻 깊은 시간이었으며 점등은 1월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유아세례 예식**



지난 12월25일 성탄절에 김승우군(부-김재성, 모-박소라). 유아세례식을 가졌다.



한글도 몰랐던 어린 시절, 손때 묻고 빛바랜 까만색 성경책을 펼쳐 드시고 할머니께서 내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동방박사 세 사람과 어느 마굿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이야기에 놀라움과 흥분을 자아냈던 그 기억이 아동부교사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지금 또렷한 이유는 뭘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어



## 성탄축하 전야제 12월24일 "교회학교 주최"

저 간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화려한 네온사인 조명을, 젊은 이들의 거리? 크리스마스의 참 주인의 의미가 사라지는 듯 싶어 안타까울 뿐이다. 성탄절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이다.

이날은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세계인의 축제라 할 수 있다. 어린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준비한 성탄절 발표회는 아기예수의 탄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이웃과 친지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문안 인사를 먼저 드리는 건 어떨까? <김대현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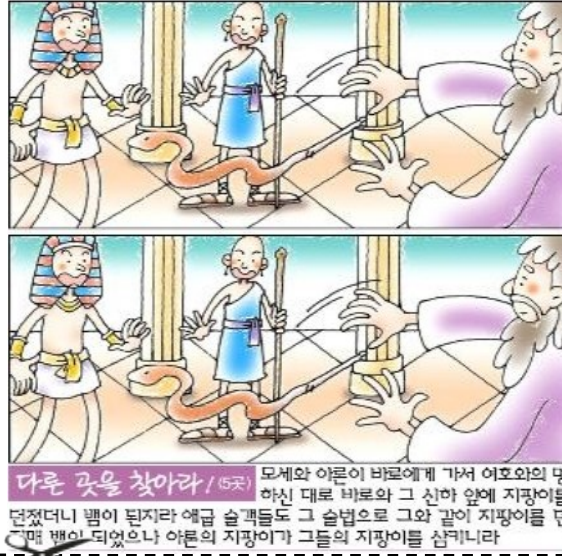
## 실버처치예배를 드리며 지역의 사랑방, 실버처치

"어르신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수요일 오후 2시에 백운교회로 놀러 오세요." 목사님께서 손수 운전하시고 봉사원들과 화요일이면 백운지역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드리는 인사말이다. 또한 강조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교회가 백운지역 문화와 복지를 담당해야 한다며 교회 내 어르신들에게도 연례행사로 효도관광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행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중심을 아셨기에 실버처치를 개설하게 하셨나 봅니다. 눈길을 마다않고 손수레를 밀며 오시는 것을 보며 감동과 감사함이 밀려 오고 우리는 그 분들을 위해 다과와 건강샬, 섹소폰 연주, 아코디온연주, 기타연주, 에어로빅 율동강의, 이어지는 목사님의 기타연주에 맞춰 예수님을 찬양하며 노래 부르고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사탄에 대한 말씀 등 짧은 시간이지만 웃음과 화기애애한 순간을 매주 연출한다. <한영애권사>

**12월호 정답자 발표**  
추첨결과 ▶이양하(원서)▶박미순(원서)▶한영애(대월)▶정수영(재현)으로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백운교회 안내 / 백운감리교회는 1904년에 창립된 113년 역사의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발행인 : 신상균 목사  
총괄제작 : 백운교회문화부장  
제작실무 : 백운교회 간행팀  
전화 : 043-652-9191  
발행일 : 매월 첫 주일  
Email: vit2be@naver.com  
☞이름 이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1월호 "틀린 그림찾기" 응모권

그림 속의 "틀린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응모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1월 29일 마감/추첨)  
<틀린 그림 : 5곳 찾기>

이름:	전화번호:

## 중고물품 나눔장터



대림Honda 4발이 오토바이 매물. 몇 번 타지 않았고 250만원에 구입했으며 매매금액은 180만원. 연락처: 010-2044-3645.